10.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朝三暮四

현상의 교묘한 변화에 현혹되면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된다. 저공과 원숭이의 이야기에 비추어, 눈앞의 이익이나 편의에 급급하여 정작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자.

송나라에 저공이란 사람이 있었는데 원숭이를 사랑하여 그것을 길러 무리를 이루었다. 저공은 원숭이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고 원숭이 또한 저공의 마음을 알았다. 저공은 식구들의 먹을거리를 덜어 원숭이에게 먹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식량이 바닥나고 말았다.

將限其食한대 恐衆狙之不馴於己也하여



새로 배울 한자

*狙 **저** 원숭이　*馴 **순** 길들이다　*誑 **광** 속이다　*茅 **서** 상수리나무　*俄 **아** 잠시

- 성어의 유래를 알 수 있다.
- 한자의 다양한 음·뜻을 알고 문장을 풀이할 수 있다.



先誑之曰 "與若芧하되

朝三而暮四면 足乎아?"하니

衆狙皆起而怒라.



俄而曰 "與若芧하되

朝四而暮三이면 足乎아?"하니

衆狙皆伏而喜라.

"열자"

읽고 풀이하기



제한하다 (길들여져) 따르다
將限其食, 恐衆狙之不馴於己也,
장차~하려 하다 ~이, 가 ~에게, ~를

先誑之曰: "與若芧, 朝三而暮四, 足乎?"
너 ~인가?
그 주다 그리고 만족하다

衆狙皆起而怒.

俄而曰: "與若芧, 朝四而暮三, 足乎?"
잠시 있다가

衆狙皆伏而喜.
엎드리다

*與: ① **주다** 授與(수여)
② 더불어 與民同樂(여민동락)
③ 참여하다 參與(참여)

*若: ① 만일(萬若)
② 같다(自若)
③ **너**

*足: ① 발 足浴(족욕)
② **만족하다** 豐足(풍족)

朝三暮四 뒤집어 보기

생각 넓히기

혹자가 물었다. "朝三暮四의 속임수를 써서 이기는 것과 속임수를 쓰지 않아서 망하는 것은 어느 쪽이 낫습니까?" 양자(楊子)가 말하였다. "속임수를 쓰지 않아서 망하는 것이 낫다."

혹자가 물었다.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려면 무력으로 정벌할 필요가 있습니까? 朝三暮四의 속임수가 있는데, 어찌 쓰지 않습니까?" 양자가 말하였다.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고자 하여 속임수를 쓰는 것은 괜찮다. 그러나 제후들에게 위엄을 떨치면서도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만은 못하다."

*양자(楊子) : 중국 전한 시대 학자이자 문인

• 윗글을 참고하여 다음 질문에 대한 자기 생각을 정리해 보자.

질문	• 저공은 정말 간사한 사기꾼일까? • 원숭이의 선택은 과연 어리석었나? • 朝三暮四 외에도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나의 생각	

인문학 더하기

같은 뜻 다른 표현

한·중·일 단어 중 의미는 같지만 표기가 다른 것들이 있다.

'오늘'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今日(금일)'로, 중국에서는 '今天(금천)'으로 표기한다. 마찬가지로 '내일'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明日(명일) 또는 來日(내일)'로, 중국에서는 '明天(명천)'으로 표기한다. 'America'를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美國(미국)', 일본에서는 '米國(미국)'으로 표기한다. 이 말은 구한말에 'America'를 '彌利堅(미리견)'이라고 발음하여 쓴 데서 온 말이다. '彌(미)'가 복잡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美(미)'를 썼고 일본에서는 '米(미)'를 사용했다.

에어컨, 컴퓨터, 피아노 등을 한국과 일본에서는 외국어의 음을 따라 자국어로 표기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뜻을 살려 단어로 만들었다. 중국에서 에어컨은 空調器(공조기: 공기 조절기), 컴퓨터는 電腦(전뇌: 전기 뇌), 피아노는 鋼琴(강금: 철선으로 이루어진 거문고)으로 표기한다.

한편 사용하는 한자도 같고 발음도 비슷한 경우도 있다. '두부'는 한자로 '豆腐'로 쓰고 중국에서는 이를 '또오후'라고 읽는다. 두부가 약 2,000년 전 중국에서 만들어져 여러 나라에 전파되어서인지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두부를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음도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일본은 '도우후', 홍콩은 '또오후', 대만은 '따우후', 말레이시아는 '따오후', 인도네시아는 '따후'라고 읽는다.

새로 배울 한자

*彌 미 두루　　器 기 그릇　　鋼 강 강철

어휘력 키우기



1 '言' 이 들어간 한자

誇 과 자랑하다 _ 誇示 과시
譜 보 계보 _ 族譜 족보
訴 소 하소연하다 _ 訴訟 소송
誦 송 외다 _ 暗誦 암송
讚 찬 기리다 _ 稱讚 칭찬
諾 낙 허락하다 _ 許諾 허락

2 모양이 비슷한 한자

暮 모 저물다 _ 歲暮 세모
募 모 모으다 _ 應募 응모
慕 모 그리워하다 _ 思慕 사모
幕 막 막 _ 帳幕 장막

限 한 끝 _ 限界 한계
恨 한 한하다 _ 悔恨 회한
根 근 뿌리 _ 根幹 근간

3 학습 용어_정치와 법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단어를 찾아보고, 풀이와 의미를 알아보자.

政治와 法

政黨　債務　交涉團體
公薦　立憲君主　拘束適否審

4 어휘의 활용

- 한국 영화가 躍進하려면 좋은 시나리오가 확보되어야 한다.
- 일의 진행이 尋常치 않음을 깨닫고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이 감돌았다.
- 민주주의를 毁損하고 국민과 疏通하지 않는 위정자에겐 反旗를 들 수밖에 없다.
- 차량 운행 시 초등학교 정문 半徑 300m 이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徐行해야 한다.

새로 배울 한자

誇 **과** 자랑하다　譜 **보** 계보　訴 **소** 하소연하다　訟 **송** 송사하다　誦 **송** 외다
讚 **찬** 기리다　諾 **낙** 허락하다　募 **모** 모으다　慕 **모** 그리워하다　帳 **장** 휘장
悔 **회** 뉘우치다　幹 **간** 줄기　黨 **당** 무리　債 **채** 빚　涉 **섭** 건너다, 관계

확인하기



[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恐衆狙之不馴於己也, 先誑㉠之曰 : "與若芧, 朝三而暮四, ㉡足乎?", 衆狙皆起而怒. 俄而曰: "與若芧, 朝四而暮三, 足乎?", 衆狙皆伏而喜.

1. ㉮에서 마지막으로 풀이되는 것은?

① 恐　② 衆　③ 不　④ 馴　⑤ 己

2. ㉠이 가리키는 것은?

① 狙　② 己　③ 芧　④ 公　⑤ 朝

3. ㉡과 쓰임이 같지 <u>않은</u> 것은?

① 滿<u>足</u>　② 不<u>足</u>　③ 充<u>足</u>　④ 自<u>足</u>　⑤ 手<u>足</u>

4. 윗글에서 유래한 성어의 의미로 옳은 것은?

①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
② 인생의 길흉화복은 예측하기 어려움.
③ 어려운 일도 꾸준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음.
④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 엉뚱한 사람이 이익을 가로챔.
⑤ 가까운 사이에 있는 하나가 없어지면 다른 하나도 위태로워짐.

團 **단** 둥글다, 모임　憲 **헌** 법　躍 **약** 뛰다　尋 **심** 찾다, 보통　毁 **훼** 헐다
疏 **소** 트이다　旗 **기** 깃발　徐 **서** 천천히 하다